

2015 부산국제수산물무역EXPO 개막

10월 29~31일, 벅스코서 아시아 최고수준 수산종합전문 박람회

부산시와 벅스코는 아시아 3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산종합전문 박람회인 제 13회 '2015 부산 국제수산물무역EXPO'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벅스코 제 1전시장에서 25개국 394개사 820부스, 17,672m²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수산관련 품목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 품목별, 주제별 테마관을 운영하여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다. 품목별로는 △씨푸드관 △수산기자재관 △해양바이오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산기자재관은 작년보다 참가업체 수가 52%나 늘어났고 할랄수산식품 및 해양바이오관련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어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어묵의 성공을 이어갈 한국대표 수산브랜드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등어(市漁)홍보관 △신제품홍보관 △남시용품특별관 △부산어묵특별관을 마련하였다.

올해도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는 아시아 최고의 수산자원외교 격전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 연안국 해양수산관련 장·차관급을 포함 고위 인사들을 접견하여 신어장 개척 및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또 매년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를 참석하고 있는 세네갈의 해양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모로코, 중국 웨이하이시, 닝보시 등의 실무 고위 인사들과 모리타니 주일대사를 비롯 미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방글라데시 등 각국 주한 외교사절 들도 대거 참석, 자국 수산물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들이 참가규모를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관을 두 배 이상 늘려 세계 5위 수산물소비대국인 한국시장 공략에 열을 올린다. 해외 참가국가는 지난 해와 같은 25개국이지만 103개사 121부스 규모로 작년에 비해 부스규모가 약 30% 증가했다. 특히 모로코는 작년에 이어 16부스 규모로 참가했고 중국은 웨이하이시와 닝보시가 19부스 규모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국내 수산대기업들도 신어장 개척과 고급수입선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스로 참가한다. 국내 최대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이 조기에 참가를 확정지었고 사조씨푸드도 올해 모처럼 선을 보인다. 수협중앙회,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수산물지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들도 고등어관련 신제품, 할랄제품, 수산가공식품 등을 전시하는 대형부스로 마련한다.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포항, 경기, 영덕 등 전국 단위의 명품수산물 지자체관이 대거 참가하여 지역특화 수산물홍보와 함께 어촌관광홍보에도 나선다.

수산물 및 수산양식기자재 수출 및 내수촉진을 위한 국내 비즈니스상담회도 열린다. KOTRA

동남권사업단이 초청한 바이어 72명을 비롯 8백여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수산기업 60여개 업체가 7백여건의 상담을 벌여 66억원 상당의 수출상담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부대행사 및 동시개최행사로 참관객들에게 수산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1,5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가하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벅스코에서 개최되며, 최근 높아진 할랄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할랄 수산식품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세미나가 30일 할랄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외에도 유명 요리연구가 이해정이 31일 토요일 수산물 쿠킹쇼를 펼치는 것을 비롯 명품 수산물 경품추첨행사 등 수산물 홍보 촉진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전시회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올 해 행사는 수산외교사절이 대거 방문하여 한국의 수산업의 활성화와 신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및 관련 산업의 수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강화하고, 내수소비촉진을 위한 국내비즈니스 상담회를 확대 개최하여 수산업 무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2015-10-16)